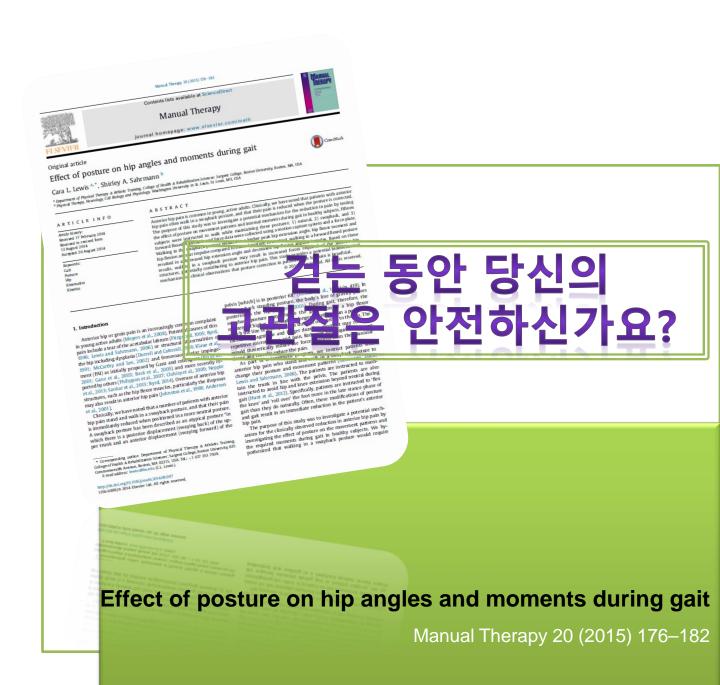


Interesting Articles for KEMA Members





직립보행, 즉 <mark>걷기는 체간을 세워 다리를 교대로 내</mark>딛는 것으로 몸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학의 관점에서 인류를 규정하는 최대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 자세는 인류의 형태, 생리기능,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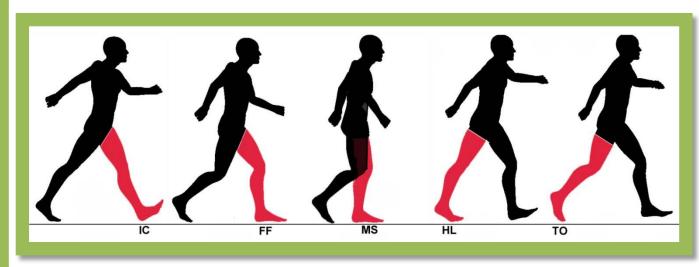


보행은 인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 하 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행 형태는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몸의 신호 중 하 나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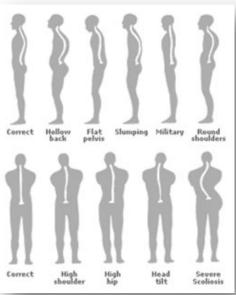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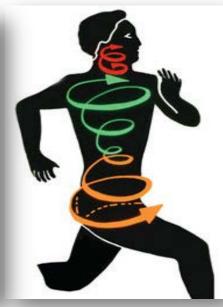
보행의 형태는 사람마다 제 각각이며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잘못된 걸음걸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입힐수도 있습니다.



특히 <mark>잘못된 자세</mark>로 장시간 보행을 **할 경우 엉덩관절** 및 척추에 무리를 주어 손상을 일으키고 통증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mark>걷는 중 자세</mark>에 따라 나타나는 움직임 패턴과 이에 요구되는 힘(moment)의 효과를 조사하여 앞엉덩관절 통증의 감소를 위한 잠재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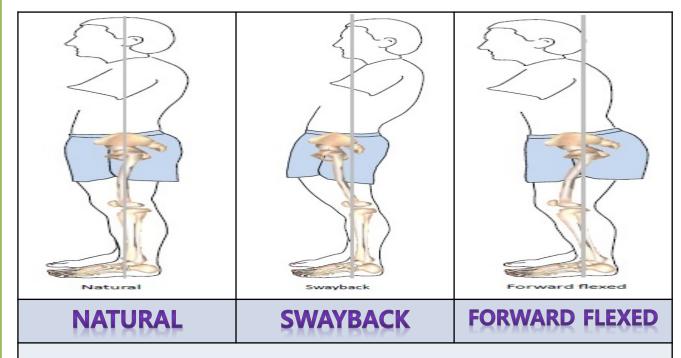




대상자는 건강하고 고관절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15명(3명의 남자, 12명의 여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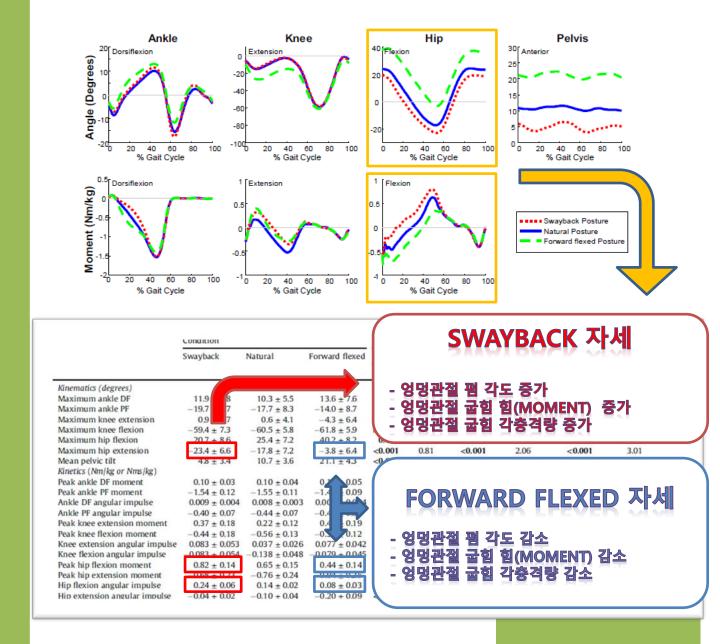


움직임과 힘에 관한 자료는 6개의 카메라로 이루어 진 동작 분석기를 이용하였습니다. 지면반발력 (Ground reaction force)은 Bertec force plat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 3가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순서대로 걷는 과제를 수행
- 3가지 모두 같은 속도로 진행
- 각각 3.045m 걷기
- 동작 분석기 사람의 움직임을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기록하는 것
- 지면반발력 인체가 지면에 대하여 힘을 가할 때, 이 지면에서 인체에 가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 지면반발력 패턴과 최대반발력과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보행의 기능적 평가와 비교가 가능하다.





Swayback 자세로 걷기 동작을 수행할 경우자연스러운 자세로 걸을 때보다 최대 엉덩관절 폄각도와 엉덩관절 굽힘의 힘과 엉덩관절 굽힘 각충격량이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충격량 – 두 물체의 충돌 전 후의 각운동량의 변화량



Swayback 자세로 걷는 것으로 인한 엉덩관절 펌 각도 증가는 골반 후방경사로 이어지고 이것은 앞 엉덩관절에 작용하는 힘을 주요하게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엉덩관절 굽힘 힘과 엉덩관절 굽힘 각 충격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엉덩관절 굽힘 근육들이 더 많은 힘과 더 긴 기간의 힘을 내도록 요구시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된다면 앞 엉덩관절 구조물에 미세 손상과 부상을 발생 시킵니다.

따라서 "걷는 동안 당신의 고관절은 안전하신가요?"에 대한 질문에 근골격계 전문가인 우리의 답변은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유지하여 걷는 것이 앞 엉덩

관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이 논문을 근거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KEMA 책임 연구원 김준희-

-문의사항은 KEMA 홈페이지 기사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